

책과 함께, 혹은 책을 통해 떠난다

여행안내서 출판 여름 들어 부쩍 활기... 테마별 여행안내서 특히 인기

또 다시 여행의 계절이 돌아왔다. 지난해에 는 짜증나고 지루한 휴가였고 여행이었지만 그래도 올해의 휴가, 여행은 새로운 것이라는 기대는 사람들의 마음마다 다 있을 것이다. 물론 지난해의 여행에서 얻은 짜증은 이제 어느 정도 '추억감'이 되어 함께 여행을 다닌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의 초점이 될 그런 계절이 또다시 돌아왔다.

문화 예술 안목 높여주는 각종 탐방기 인기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책들이 여름휴가철을 겨냥해 출판되었다. 국내 각종 여행안내서를 비롯해서 해외여행안내서, 교통도로지도 등의 실용서가 시중서점에 나와있고, 휴가와는 무관한 듯하면서도 여행의 소양을 풍부히 해주는 문학예술기행이나 우리문화를 찾아가는 탐방기 등이 컬러화, 세분화된 편집형태로 독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여행 실용서의 역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문학예술기행도서도 많은 중수가 출간되어 있는 상태다. 김윤식교수가 쓴 「환각을 찾아서」(세계사) 「황홀경의 사상」(홍성사) 「작은 생각의 집짓기」(나남) 「낮선 신을 찾아서」 「문학과 미술사-현장에서 본 예술」(이상 일지사), 김현의 「김현 예술 기행」(열화당), 전규태의 「동서문학산책」(시간과 공간사), 신경림의 「민요기행」(한길사) 「강따라 아리랑 찾아」(문이당), 서경식이 지은 「나의 서양 미술 순례」(창작과 비평),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창작과 비평), 김훈의 「내가 읽는 책과 인생」(푸른숲), 그리고 문화예술분야 인물탐방기인 이시현의 「여기 이땅 이 사람들」

(햇빛), 고은의 「절을 찾아서」(책세상) 등이 있다. 한편적으로 본다면 윤경렬옹이 경주 남산의 유적에 대해 쓴 「겨레의 땅 부처님 땅」(불지사)도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할 것이다. 이들 책들은 우선 단순하게 속독으로 넘길 책들부터 정독을 하면서 사색할 수 있는 책까지 그 경중이 다양한 한편 현지의 풍습과 작가나 사적의 유래를 풍부하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988년 6월 1일(수)

아침부터 비가 왔다. 서울역 지하철에서 대합실까지 뛰어갔는데, 옷이 여지없이 젖을 정도였다... 천안행 경부선 급행은 한가했는데... 천안이란 무엇인가. 이기영의 소설 「고향」(1934)의 무대이다.”

「환각을 찾아서」의 한 대목이다. 천안은 지리적으로 단순한 곳이지만 천안이라는 공간환경속에서 배출된 작가의 배경이 되는 '천안'은 일반인이 느끼는 '천안'과 다르게 마련이다. 문학예술기행은 이처럼 특정인이나 특정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을 독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작품이해의 심도를 넓고 깊게 해준다.

문학기행은 왜 쓰고, 읽는 것인지, 왜 그것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환각을 찾아서」 머리말에서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는 듯하다.

“작품속에는 두 인격체가 있다. 하나는 작품속에 살아 움직이는 인물이고 또 하나는 작가다. 그러나 책을 읽다보면 작품의 울림이 누구의 말인지 종잡을 수 없게 된다. 이럴때 작품을 떠나 작품과의 거리를 두는 방식이 필요하며, 여기에 문학기행은 근원을 두고 있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책들이

휴가철을 겨냥해 출판되었다.

국내 각종 여행안내서를 비롯해서

해외여행안내서, 교통도로지도 등의

실용서가 나와 있고, 여행 이외에

문화적 소양을 풍부히 해주는,

문학예술기행이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문화유적지를

돌아보고서 쓴 탐방기 등이

독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다.”

즉 문학기행은 작중인물, 작가, 두 존재가 동시에 내는 목소리가 아닌 제4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면서 동시에 작품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문학기행은 활자의 세계가 아닌 현장을 보거나 보여줌으로써 작가나 독자에게 신선함을 던져준다. 창작무대는 작품의 인물보다 현실적이어서 작품을 논리화하는 데도 유용하고 작품을 오래전에 읽은 이에게는 작품을 회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환각을 찾아서」는 역사적 작품의 배경을 순례한다. 「태백산맥」의 별고, 독립기념관, 채만식의 행적을 좇아 전주·전북 옥구군 임피면 생가·안양·군산 등을 돌고, 사르트르의 무덤이 있는 파리 몽파르나스, 「폭풍의 언덕」의 무대와 에밀리 브론테의 집, 셸록홈즈·마

네·마르크스의 런던 등을 거치면서 지적 여행을 하고 있다.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책은 유홍준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기행문의 형식으로 씌어진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강진, 해남을 중심으로 하는 남도지방을 비롯하여 예산, 경주, 문경, 담양, 양양 등지에 있는 문화유적들을 현장답사하고 그중 관심이 가는 문화유산을 저자의 관점으로 선택하여 그것의 형태적 특징과 아름다움, 내용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것을 창조한 이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그것이 지닌 현대적 의의까지 밝혀내고 있다. 단순한 답사기의 차원을 넘어서 저자의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면서 구체적인 자료로 자신의 논리를 세우고 있다. 그런가 하면 향토의 자연과 토박이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통해 민족의 기질과 심성의 근원을 찾기도 한다. 서경식의 「나의 서양미술 순례」 또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씌어진 글로 예술적인 심미안을 길러주면서 작가와 작품의 주변 이야기를 평이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여기 이땅 이 사람들」은 동아일보에 「문화의 빛을 찾아」와 「향토의 숨결」이라는 표제로 장기 연재된 문화예술분야 인물탐방기. 광주 무등산, 북계주 장수촌, 하순 천불천답계곡, 한려수도 바다목장, 칠곡 베네딕트 수도원 농장, 경주 민예마을 등 30곳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광주 무용가 엄경자, 마산 조각가 문신 등 58명의 예술인들이 그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한 점과 그들의 예술세계를 개괄하고 있다. 한편 김훈의 「내가 읽는 책과 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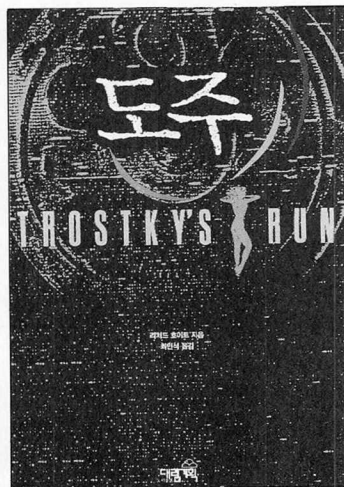
“이 소설을 당신의 도서 목록 최고 순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 뉴욕타임즈誌 -

- 발간 1주만에 재판 돌입
- 全美洲를 휩쓸었던
- 회오리같은 첩보소설!

리처드 호이드 지음
최인석 번역



TEL. 268-4902 FAX. 277-6946



미합중국 대통령을 암살하라!

백악관의 지반이 흔들리고 있다.

정치란? 사실폭로-추적-도주-검은침묵

영웅은 시대와 역사의 괴리 속에서 튕겨나온 이단자인가!
천지의 대변동 속에서도 실재 상황 아래 정확한 판단으로 등산용 얼음도끼와 같은 명령이 내려진다.

허구인 이 작품에 묘사된 모든 인물과 사건이 만일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나, 발생했던 사건과 흡사하다면 그것은 이 시대가 낳은 모순과의 우연일 것이다.



여름철 휴가를 겨냥해서 출판된 책들은 교양서로도 유용한 읽을거리를 제공해준다. 한 서점의 휴가도서 코너.

도 한국일보에 소개된 글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여러 작가의 작품세계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절을 찾아서」는 올해 회갑을 맞이한 고은 시인이 과거에 체험한 문화기행집. 10여년간 수도자생활을 하면서 이곳저곳의 '절을 찾아서' 떠돌던 저자가 각 절의 유래와 문화유산 그리고 그 절에서 느끼는 단상들을 기록하고 있다. 절의 위치도 표시되어 있어 절을 찾는 이에게 과거로의 여행을 유도하고 있다.

가족단위 배낭여행기도 다수 출판돼

예술기행과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해외여행을 위한 배낭여행기가 많이 출판되어 있는데 예년에 비해 올해는 가족단위의 배낭여행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기와 함께 배낭 여행」(김재민, 우신사)

는 아기를 데리고 해외여행에 나선 부부의 여행기로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의 풍물과 한 가족이 여행을 하는 즐거움, 느끼는 점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밖에 「배낭 속의 유럽」(이혜웅, 빛남) 「너희들의 무대는 이곳이란다」(이정숙, 진술) 「반도촌놈 대륙촌놈」(여수환, 쟁기) 등의 배낭여행기도 인기를 끌고 있다.

배낭여행기를 비롯해서 해외여행을 위한 안내서들은 단순한 '안내서'에서부터 기행문학의 범주에 드는 것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런 책들 속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책들을 살펴보면 「비즈니스 해외여행」(대한무역진흥공사, 매일경제신문사)과 「해외여행과 관광」(이준상, 제성) 「만화로 익히는 안전한 해외여행」(호산문화) 등이 있는데 해외여행에서 주의해야 할 건강문제, 비즈니스상의 해외여행

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외국여행에서의 안전 수칙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독자들은 각 지역을 돌아보고 기록한 탐방기를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이 서점관계자들의 말이다. 최성민의 「섬.섬.섬」 「그곳에 다녀오면 살맛이 난다」는 관광지의 역사체험과 옛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곁들인 탐방기. 김성호의 「세계는 어디나 고향같다」는 저자 자신이 유럽여행에서 느낀 점과 겪었던 에피소드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김형렬의 「한국사람 일본가기」는 일본관광지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에 맞는 곳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이화의 「중국 역사기행」은 저자가 90년과 91년에 방문한 중국의 조선족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

실용서와 답사기 함께 보는 것이 좋아

여행할만한 곳 중에서도 한 분야의 곳만 모아놓은 책들도 눈에 띄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장터순례기들이다. 과거, 장터라는 장소는 그 지역의 특산물이 모두 모이고, 마을의 정보가 모두 모이는 곳. 지금도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어 장터를 소개하는 책은 추억을 되새기게 해준다.

「장터순례」(이철호, 유럽)는 60여곳의 특색있는 물건, 식품, 약재, 음식과 각 장터와 가까운 곳에 있는 명승고적 관광지, 각 지방 전설과 풍물을 다루고 있다. 특히 지방 특산물을 찾아 60여곳의 장터도 소개하고 있다. 「알뜰시장 소프트」(임선희, 장백)는 품목별 전문시장 36곳, 대표적 중고시장 6곳, 서울의 7대 시장, 전국 특산물시장(5일장) 등을 소개

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없어도 재미로 읽을 수 있는 글과 함께 교통편도 알려주고 있어 처음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안내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다.

역사적인 지식을 얻으면서 각 지방의 풍물이나 여행방법들을 소개하는 책들도 다수 출판되어 있는데 「제주기행」(고창훈 외, 백산서당)과 「지리산」(김명수, 돌베개) 등이 눈에 띈다. 「제주기행」은 제주의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포함한 관광안내서이고 「지리산」은 「역사기행을 위해」 씌어진 등산안내서. 한편의 책으로 관광과 역사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최근 발간된 동아출판사의 「세계의 가볼만한 101곳」도 인기를 끄는 도서. 전세계 51개국의 명소, 명물, 인물 등을 촬영하고 여기에 저명인사의 여행기가 있어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서 소개한 책이외에도 각 대형서점에서는 특설코너를 마련, 독자들이 쉽게 여행서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여행에 있어서 실용서와 각종 지적 기행의 글들은 더없이 좋은 궁합을 갖고 있는 책들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지리산을 등반한다고 했을 때 지리산의 등산로를 표시해놓은 등반용 지도책과 지리산의 역사나 풍물, 자연 등을 담은 책은 한쌍의 어울리는 여행지침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 이성수 기자

| | | |
|-------------------------------|-----------------------------|--------------------------------|
| 1 부활 톨스토이 | 9 데미안(외) 헤르만 헤세 | 17 테스 토머스 하디 |
| 2 좁은 문(외) 앙드레 지드 | 10 파우스트 괴테 | 18 신곡 단테 |
| 3 아Q정전(외) 노신 | 11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 19 여자의 일생(외) 모파상 |
| 4 대위의 딸(외) 푸슈킨·톨스토이 | 12 헬릿(외) 제익스피어 | 20 적과 흑 스탕달 |
| 5 채털리 부인의 사랑 로렌스 | 13 마지막 잎새(외) 오 헨리 | 21 검은 고양이(외) 포우 |
| 6 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 | 14 성(城)·변신 카프카 | 22 제인 에어 샬로트 브론테 |
| 7 귀여운 여인(외) 체홉 | 15 보바리 부인 플로베르 | 23 개선문 레마르크 |
| 8 첫사랑·전날밤 투르게네프 | 16 주홍 글씨(외) 호손 | 24 무기여 잘 있거라(외) 헤밍웨이 |

예원은 성실이 양서를 출판하겠습니다.



헤원 세계 문학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4
전화/336·5804 333-9991, 2
FAX/333·9996

헤원출판사

| | | | |
|--------------------------------|-----------------------------------|---------------------------------|---------------------------|
| 25 실낙원·복낙원 밀턴 | 33 오딧세이아 호메로스 | 43 분노의 포도 존 스타인벡 | 53 달과 6펜스 서머셋 모 |
| 26 안네의 일기(외) 안네 프랑크 | 34 닥터 지바고 파스테르나크 | 44 백경 허먼 멜빌 | 54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
| 27 보물섬(외) 스티븐슨 | 35 누구를 위하여 조종은 올리나·헤밍웨이 | 45 카라마조프 가 형제 도스토예프스키 | 55 성채 생텍쥐페리 |
| 28 그리스 로마 신화 토머스 불핀치 | 36 죄와 벌 도스토예프스키 | 46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거릿 미첼 | 56 데카메론 보카치오 |
| 29 골짜기의 백합 발자크 | 37 대지 펠 벅 | 47 생의 한가운데 루이제 린저 | 57 타고르 선집 타고르 |
| 30 성채 크로닌 | 38 세익스피어 4대 비극 제익스피어 | 48 백년 동안의 고독 마르케스 | 58 지와 사랑 헤르만 헤세 |
| 31 나나 에밀 졸라 | 39 어린 왕자·야간 비행 생텍쥐페리 | 49 천국의 열쇠 크로닌 | |
| 32 일리아드 호메로스 | 40 이방인·페스트 알베르 카뮈 | 50 가시나무새 콜린 맥컬로우 | |

헤원 세계 문학은 계속 나옵니다.